
		보 도 자 료		<div>2025년</div> <div>수도권매립지 종료</div> <div> 인천광역시</div>
		배포일자	2021년 3월 8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예산담당관	담 당 자	• 예산총괄팀장 윤재호 ☎440-2251 • 담당자 최은영 ☎440-2253	
담당 부서	대변인실	담 당 자	•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☎440-3318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 에코랜드(자체매립지) 본격 추진을 위한
제1회 추경안 편성**
- 에코랜드 토지매입지 620억 원 반영, 자체매립지 가동을 본격화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8일 친환경 자체매립지인 영흥도 에코랜드(가칭) 조성에 쓰일 토지매입비용이 반영된 ‘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’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추경안은 에코랜드 부지매입비용 관련 내용만 담은 ‘원포인트 추경안’이다. 인천시는 추가적인 재원조달이나 예산 규모의 변동 없이 특별회계 예산의 기존 예비비 788억 원 중 620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했다.
- 인천시가 추경을 통해 매입하려는 토지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 부지 총 894,925㎡이며, 이 가운데 약 150,000㎡는 매립 용도로, 나머지는 주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들어설 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다.

- 이번 추경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는 올 상반기 내에 토지 취득을 완료하고, 시설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착공에 돌입할 방침이다. 이어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맞춰 자체매립지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.
- 박남춘 시장은 “에코랜드는 내 집 앞·내 아이 곁에 뒤도 안심할 수 있는 완전한 친환경 시설로 조성될 것이라고 300만 시민께 약속한다”며 “이번 추경안은 영흥도가 친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,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신호탄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그러면서 “시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영흥을 ‘친환경 보물섬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”고 덧붙였다.
- 한편, 박 시장은 지난 4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 894,925㎡ 규모의 부지를 에코랜드 입지로 선정, 발표한 바 있다.